

■ 2017년도 국제교류사업 1차공모 분야별 심의 총평

문학분야

- 일시 : 2017. 1. 20(금) 10:00 ~ 13:00
- 장소 :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화영, 우찬제, 이하석, 장영주, 정지아

‘국제 교류 지원’ 사업은 한국 예술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남북 간의 민족문화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창작 역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 교류를 통해 한국 예술의 혁신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고 또 그 긍정적 파급 효과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이 사업에 총 5 과제가 지원했다. 그 중 일부는 매년 신청하여 수차례 지원 받은 과제도 있고, 이번에 신규로 신청한 과제도 있다. 이를 심의하면서 심의 위원들은 다음의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의하고자 했다.

첫째, 사업계획이 이 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타당한지, 충실하게 계획되었는지, 신청 주체의 문화예술적 신뢰도와 국제적 영향력이 어떠한지 등을 면밀히 고려하고자 했다.

둘째, 기획 프로그램의 독창성 측면에서, 기획자가 예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획을 창의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를 검토했다. 관습적으로 수행해온 연중 사업을 제출한 경우는 심각한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셋째,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이전까지의 활동 실적이나 사업 성과와 관련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신뢰할만한가, 프로그램 참여자의 예술적 전문성이나 창의성을 인정할 만한가, 적절한 예산 계획 수립 여부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은 타당한가, 교류사업 관련 교류 국가간, 교류 주체간 업무의 예산 분담이 적정한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했다.

넷째, 사업 계획의 국제적 파급 효과 측면도 중요한 심의 대상으로 삼았다. 교류 사업을 통해 국제적, 국내적 파급 효과가 긍정적이기 위해서는 단지 참여자들의 친목 도모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수준 높은 한국 문화예술 담론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고 심의하려 했다.

위와 같은 기본적 심의 기준과 아울러 문화예술 기금의 공공성 확보와 문화적 의미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했다.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지원 목적에 덜 미치는 과제를 지원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기준과 맥락에서 한국과 중국의 작가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고자 기획한 한중작가회의 지원 건을 선정하기로 했다.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 사업은 예술위원회가 기획·발굴한 국외 창작 거점에 적합한 예술가를 파견하여 해당 예술가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문화 예술의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는 모두 34건의 과제가 신청되어, 파견 기관별 특성과 자격 요건을 심분 고려하여 심의했다. 심의 과정에서 다음 기준들을 중심으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첫째, 신청인이 그 동안의 창작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창작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한 열정과 동기를 효율적으로 제시했는가, 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창작 혁신의 비전을 보여 주었는가 하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언어적 소통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둘째, 신청인이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창작 혁신의 실천을 어떤 방향에서 수행할 수 있는가, 해외 예술가들과의 상호 교류와 생체험을 통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잠재력을 갖추었는가, 그리고 그 창의적 노력들이 본인과 한국 문학의 심화와 확대, 네트워크 확충 등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등의 측면들을 복합적으로 헤아렸다.

셋째, 기여도와 파급 효과 측면과 관련하여 레지던스 참가 경험을 통해서 신청인이 새로운 발상법과 상상력의 혁신을 통하여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을 새롭게 충격할 수 있는 전위적 에너지를 확충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프로그램 참가를 계기로 문화예술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역동적으로 창출해 나갈수 있는가 등의 요인들을 고려했다.

이런 심의 기준들에 입각하여 10개 레지던스 기관 중 9개 기관에 모두 11명의 예술가들에게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로 했다. 선정을 축하드리며,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가 소망하는 대로 새로운 창작 지평을 열어 세계 문학과 당당하게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문학분야 심의위원 일동

시각예술분야

○ 일시 : 2017. 2. 1(수) 10:00 ~ 18:30

○ 장소 : 예술가의 집 위원실

○ 심의위원은 2월 심의 사업의 심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공개하지 못하고 심의 종료 후에 공개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시각예술분야 국제교류사업 지원심의에는 총 6인의 심의위원이 참여하였으며, 국제예술교류지원,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 국제교류리서치지원,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의 6개 세부사업을 심의, 선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각 사업별 목적 및 특성, 주요 파급효과 등 심의기준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를 진행하였다.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은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 및 남북 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심의기준인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20%), 기획프로그램의 독창성(30%),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30%),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20%)에 따라 심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과정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신청사업 주최/주관단체(개인)의 국제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내 및 해외 예술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상업적인 교류사업은 지원에서 배제하고자 하였으며, 해외미술계의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교류조건이 우수한 사업에 보다 집중하였다. 대관비를 자부담하는 사업일 경우 기획력 및 국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평가하고자 하였다. 국제교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국외 지역과의 교류사업일 경우 배려하여 심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총 86건 신청사업 중 28건을 선정하고 총 344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자율형 사업은 개별 예술인의 해외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여 예술가의 국제적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원심의기준인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20%), 사업내용의 예술성(3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30%), 사업계획의 기여도와 파급효과(20%)에 따라 심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심의기준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레지던스 주관기관(단체)과의 협약이 확정되어 있으며 신뢰할 만한지 검토하고, 해당 예술가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예술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지 평가하였으며, 국내 및 해외예술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국제교류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장 중점적으로 심의하였다. 이에 따라 총 32건 신청사업 중 16건을 선정하고 총 101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기획형 사업은 예술위원회가 자체 기획·발굴한 국외 창작거점에 예술가를 파견하여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지원심의기준인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40%), 성공적인 프로그램 참여가능성(30%), 사업계획의 기여도와 파급효과(30%)에 따라 심의하였다. 총 45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번 심의를 통해 각 레지던시별 후보자를 선발하고 이후 현지 주관처에서의 심사를 통해 최종참가자를 선정하는 시각분야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신청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검토하였으며, 각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지원자를 파견하는 것에 집중하여 후보자를 선발하였다. 그 결과 독일 베타니엔 스튜디오 6명, 프로젝트에이스피탈 5명, 영국 가스웍스 7명, 핀란드 HIAP 2명, 영국 테이트모던 인텐시브 프로그램 2명의 후보를 선발하였다. 해당 주관처의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참가자에게는 레지던스 참가에 대한 실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국제교류리서치지원>

국제교류리서치지원 사업은 중장기 문화예술 국제교류 프로젝트의 단계적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심의기준인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30%), 사업내용의 예술성(30%),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20%),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20%)에 따라 심의하였다. 본 사업은 중장기 문화예술 국제교류 프로젝트의 단계적 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에 맞게 중장기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획되어 있는지, 사업추진이 확정되어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리서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총 6건 신청 중 2건을 선정하고 16백만원을 배정하였다.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신규로 추진되는 아르코국제레지던스지원 사업은 국내외 예술가들이 참가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Artist in residence)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심의기준인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40%), 프로그램의 구체적 실현가능성(30%), 기여도와 파급효과(30%)에 따라 심의하였다. 총 2건이 접수되었으며, 예술가 쌍방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예술적 기획력과 국제교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과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에 대해 중점 논의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평가결과 두 사업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선정하지 않았다.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국제주요플랫폼진출사업은 예술가 개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힘든 다양한 해외 창작 플랫폼 개발을 통해,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예술 창작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

심의기준인 신청인의 프로그램 참여 적격성(40%), 성공적인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30%), 사업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예술적 성취도(30%)에 따라 심의하였다. 신청한 단체는 한 곳이었으나, 사업 내용이 플랫폼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하지 않았다. 향후 본 사업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지원신청과정에서 사업의 목적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부합하는 카테고리에 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연극분야

○ 일시 : 2017. 1. 25(수) 15:30 ~ 19:30

○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심의위원은 2월 심의 사업의 심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공개하지 못하고 심의 종료 후에 공개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의총평

국제예술교류지원 분야에는 총 7개의 세부사업이 시행된다. 이 사업들의 전반적인 목적은 국내의 연극예술 종사 단체 및 개인이 국제교류를 통해서 한국 예술과 예술가의 역량을 소개하고 고취시켜서 궁극적으로 한국의 연극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 사업목적 하에 심의위원들은 개별 세부사업의 보다 전문화된 취지에 적합한 대상들을 선정하고자 매우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실행하였다. 그런 가운데 신청주체 및 신청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선정 및 예산배분 기준을 도출하고 그에 따라서 심사하였다.

앞에서 말한 기준들과 관련해서 심의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1. 특정 단체 및 유관 단체에서 과도하게 여러 프로그램에 ‘문어발식으로’ 지원 신청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 둘째, 타 단체의 참여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셋째, 예산의 과도한 편중으로 인해서 불공정성 시비가 야기될 수 있다.
2. 초청장과 관련해서, 명백하게 초청내용과 조건이 명시되고, 상대단체로부터 가능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혜택이 제공된 경우가 우선적으로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3. 따라서 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 전반에 걸쳐서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실현가능성뿐 아니라, 예산계획의 적절성이 매우 중요한 선정기준이 된다.
4. 특정 단체가 여러 사업에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단체의 전체 신청 건수를 고려하면서 개별 사업들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결론에 더해서 내년부터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에 따라서 분리된 기준에 입각해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다.

2. 세부심의평

<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목적은, 첫째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 및 남북 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며, 둘째 한국 예술의 창작역량을 강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남북간 민족문화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33건 신청에 16건이 선정되었으며, 배정예산은 2억6천5백만원이다.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심의위원들은, 특히 신청액이 실제 작업과 비교해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의심이 갈 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집중하였다. 해결책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 적용과 비교적 관용적인 수용이라는 두 가지 대립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엄격한 기준이 관철되었다. 따라서 항공과 숙박 중심으로 예산 배정을 하였다.

그리고 신청단체의 예상 작업에 대한 충실한 집행계획 작성 및 실현가능성 역시 선정기준으로서 유의미하게 작용하였고, 따라서 과도한 예산과 모호한 계획을 설정한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

사업목적은, 예술가의 해외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 예술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예술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2건 신청에 1건이 선정되었으며, 배정액은 3백만원이다. 이 역시 사업계획의 충실도와 예산의 적절성, 그리고 확실한 초청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가운데 선정된 결과이다.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

사업목적은, 예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기획·발굴한 세계적 인지도를 갖춘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한국 예술가의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예술가의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1건 지원에 1건 선정되었으며, 예산배정은 향후 결정되며 실비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자의 활동경력과 활동계획 등이 주요 고려 사항으로서 작용하였다. 예산 배정은 향후 지원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실비지원되며 국제예술교류 기획형의 계획에 상응하는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사업목적은, 중장기 문화예술 국제교류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원사업의 수월성과 충실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5건 신청에 2건이 선정되었으며, 집행예산은 1천5백만원이다.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사업성과의 실현가능성이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작용했으며, 신청예산은 조정되었다.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사업목적은, 해외 창작 플랫폼 개발 및 국제교류 플랫폼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예술 창작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 건수는 1건이지만, 실제 선정 건은 없었다. 이는 무엇보다, 특정 단체에서 과도하게 여러 분야에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신청단체의 사업실행 계획 및 예산책정이 신뢰성을 주지 못했던 것에도 기인한다.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사업목적은,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개최 지원을 통해서 예술가들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3건 신청에 3건 모두 선정되었으며, 신청예산에 비해서 실제 예산은 조정되었다. 그 결과 실제 집행액수는 6천만원이다. 3건 모두 국제교류의 차원에서 그 나름대로 유의미한 사업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세부예산 편성의 구체성과 타당성 측면을 고려해서 지원액수는 결정되었다.

<ARKO-PAMS 협력지원>

사업목적은, 서울아트마켓 팸스초이스로 선정된 작품의 해외초청 공연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1건 지원에 1건이 선정되었으며, 예산은 조정되었다. 선정 이유는, 무엇보다 이미 해외 축제에 초청된 경험이 있으며, 동일 장소에 재초청됨으로써 작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데 있다. 또한 한국 인형극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한다.

심의위원 일동

무용분야

- 일시 : 2017년 1월 23일(월) 오전 10시~오후 8시
- 장소 :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은 2월 심의 사업의 심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공개하지 못하고 심의 종료 후에 공개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분야의 국제교류 관련한 4개 사업 [국제예술교류지원],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arko-pams 협력지원]의 공통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 예술인들의 ‘국제적인 활동 역량 강화’와 ‘국제 예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활동과 위상의 확대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서 4개 사업의 세부 목적과 교류 형식에 따라 총 61건의 지원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최종 36건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확정하였다.

신청 사업들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고무적인 사실은 국내무용인들이 직간접으로 개척한 국제교류 창구와 활동 방식이 상당히 다양해졌다는 점이었으며 이는 창작자와 현장의 기획자들이 글로벌하게 펼쳐오고 있는 왕성한 교류 활동과 현지 진출 역량 확대를 반증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더불어 민간의 교류 활동을 보완하거나 견인해온 관련 기관들의 지원 프로그램들 역시 점차 누적 효과를 높여가고 있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의위원단은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서 각 사업의 개별적인 목적과 취지를 재차 확인하였고 더불어 예술 현장에 지원사업들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선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토의와 제언도 있었다. 주요 논점 중에는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장르 및 세대에 대한 안배가 -빈약한 근거 위에- 관성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자 하는 공감대 확인도 포함되었다.

공모 안내 자료를 통해 사전에 기발표된 중점 심의 방향의 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기본 전제로 하되 신청 사업들 간의 실제적인 변별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신청 사업의 예술적 수월성, 교류 방식의 심도, 해외 현장의 관계 조직과 행사의 신뢰도, 해당 예술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 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하였다.

심의 과정을 통하여 신청 사업들의 전반적인 수준은 상향되었으나 탁월한 차별성을 드러내는 사업안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지원이 과도하게 소수의 창작자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수성을 고르게 갖춘 비교적 다수의 사업안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4개 사업, 총 61건의 신청 건 중 36건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지원금에 있어서는 선정된 사업들의 주요 경비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심사숙고하였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의 성과가 창작자 개인의 발전에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무용예술계 전반으로 환류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진심어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심의위원 일동

음악분야

○ 일시 : 2017년 2월 1일(수) 10:20~16:30

○ 장소 : 예술가의 집 세미나 2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성국, 김용환, 박재성, 정종열, 정치용, 최광일, 한상일

201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 중 <국제예술교류사업 음악분야>의 심의는 1) Arko-Pams 협력지원, 2)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3) 국제주요플랫폼 진출지원, 4) 국제예술교류지원, 5) 해외 레지던스지원(자율형)의 총 5개 부문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심의의 과정은 본 사업의 취지 및 심의 평가 기준 등이 설명된 자료와 각 지원서가 사전에 심의위원들에게 배송되어 각 심의위원들이 모든 지원 서류들을 충분한 검토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심사는 각 심의위원들이 본 사업에 지원한 단체 및 개인의 평가 항목에 대한 검토 소회를 피력한 후에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상위로 선정된 단체의 지원 금액에 대한 심의가 토론식으로 진행되었고, 순위별로 지원 금액이 차별적으로 조정되었다.

본 심의 과정에서는 일부 단체들이 각 부문 별 사업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응모를 하여 ‘해당없음’의 평가를 받았거나, 혹은 구비 서류의 미비로 인해 결격처리 된 경우가 상당 수 눈에 띄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없는 사항(예를 들어 카메라 구입 등)을 지원예산에 책정하여 지원 금액에서 감액 처리된 경우도 있었다. 향후에 본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개인)들은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사업취지와 지원항목을 인식하여 지원하기를 바란다.

또한 일부 지원사업(‘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의 경우 두 단체를 선정하였지만 단체의 지원신청금액이 책정 예산의 범위를 훨씬 상회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 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이번 심사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고 치열했던 부문은 ‘국제예술교류지원’ 부문이었다. 본 심의의 여타 부문에서는 응모 단체(개인)가 1-2개에 불과한 것에 반해, 이 사업에는 총 53개 단체가 응모하였고, 이 중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평가 결과의 상위 12위 단체만이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심의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된 사항은 그동안의 국내외 활동에서 보여준 신청 단체의 예술적 역량이다. 그리고 각 항목 별 예산의 적정성, 프로그램 구성의 진지함과 질, 사업 운영의 추진 역량과 (국제교류) 연주 후의 영향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었다.

선정 단체의 지원금액 조정은 논의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85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상위 12개 팀을 선별하였는데, 이들 단체들이 신청한 지원 금액의 총 합산이 책정된 예산 범위를 훨씬

상회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1) A그룹: 90점 이상, 2) B그룹: 87점 이상, 3) C그룹: 85점 이상의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로 신청금액을 차별적으로 조정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각 단체들이 책정한 해당항목의 예산의 적정성이 엄밀하게 검토되었음을 밝힌다.

끝으로, 상위 12위권에 선정되지 않아 탈락된 일부 단체(개인)의 경우 충분한 연주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었지만, 평가점수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책정되어 선정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컸다는 점을 덧붙인다.

심의위원 일동

전통예술분야

- 일시 : 2017. 1. 24. (화)
- 장소 : 예술가의 집 2층 위원회 전체 회의실
- 심의위원은 2월 심의 사업의 심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공개하지 못하고 심의 종료 후에 공개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국제예술교류사업 1차 전통예술분야는 7인의 심의위원이 국제예술교류지원 등 총 6개 분야의 사업을 심의, 의결하였다.

우선, 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에는 총 50건의 지원이 접수되었고 심의 기준인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프로그램의 독창성, 실현가능성, 국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18건을 선정하였다. 예년에 비하여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부실하거나, 기존의 타성에 젖은 의례적인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많았고, 예산 계획 또한 심하게 과장된 경우도 적지 않아 사업 심의에 아쉬움이 매우 컸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프로그램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올해는 특히 단체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인 지원 프로그램들의 짜임새나 독창성, 파급력 등이 돋보였다. 해외한국문화원 등의 협력 및 교민 대상의 프로그램 등은, 타기관에서의 지원이 가능하며 또한 본사업의 지원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양하였으며, 장르가 적합하지 않은 사업 또한 배제하였다. 국제예술교류사업에는 유독 기존에 해왔던 방식 혹은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 등을 짜깁기하여 무작정, 무차별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문화와 시대의 변화하는 흐름에 맞추어 한층 깊이있는 예술성과 치밀한 계획, 독창적인 사업 역량을 준비하여 지원하길 바란다.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은 자율형과 기획형으로 구분되어 각각 7건과 1건이 신청하였다. 자율형레지던스는 기존에 이미 갖고 있던 기반의 안정적인 계획 보다는, 새로운 도전과 참신한 기획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해외레지던스는 무엇보다도 본인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좌우되는 사업이니만큼 책임감 있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서 도약의 소중한 계기로 삼기를 당부한다. 아직 참여가 매우 저조한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앞으로는 더욱 많은 아티스트들이 적극적으로 도전, 참여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예술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은 총 9건의 지원 신청 중에 각 페스티벌의 특성과 목적을 고려하고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된 팀들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더욱 훌륭한 공연과 멋진 활동을 펼침으로써 보다 큰 해외 진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에는 1개 단체가 단독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결정하였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무대를 개척하며 매우 활동적인 역량을 펼치고 있는 연주자가 이번 기회를 통해 한층 깊고 성숙한 예술적 활동을 위한 리서치를 성실히 수행하고 활용할 것으로 믿어진다.

선정된 모든 사업들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국제적 예술 활동 역량 강화에 소중한 발판으로 활용하기를 바라며, 또한 추후 지원 신청자들에게는 지원 신청에 앞서 각각의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우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고유한 독창적 콘텐츠와 치밀한 계획 및 적극적인 사업안을 구성하여 주길 당부한다.

심의회원 일동